

2015년 유관기관 대기·해양 세미나 개최 결과

【 2015. 11. 26.(목) / 부산지방기상청 예보과 기상주사 박소영 】

□ 배경 및 목적

- 대기·해양 관련기관 간 세미나를 통해 정보의 공유와 기술교류 활성화
- 협업과제 및 대국민 서비스 과제 발굴 등 기관 간 공동 발전 방향 모색

□ 세미나 개요

- 일시 : 2015. 11. 25.(수) 16:00 ~ 20:00 (만찬 포함)
- 장소 : 부산지방기상청 대회의실(3층)
- 참석자 : 총 25명
 - 외부(7명) :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과학원, 해군작전사령부
 - 내부(18명) : 부산지방기상청장, 예보과장 등
- 주요내용
 - 대기·해양 관련 과제 발표(3기관)
 - 참가기관 상호 협력방안 토의

□ 주요일정

시 간	일 정	비 고	
15:30 ~ 16:00	30'	○ 등록	
16:00 ~ 16:10	10'	○ 개 회 - 참석자 소개 - 인사말씀	사회자 부산지방기상청장
16:10 ~ 17:10	60'	○ 과제 발표 - '국립수산과학원 해양관측 현황 및 서비스' (국립수산과학원) - '해양예보 소개' (국립해양조사원)	기후변화연구과 한인성 해양예보과 이주영
17:10 ~ 17:20	10'	○ Coffee break	
17:20 ~ 17:50	30'	○ 과제 발표 - '기상청의 해양기상서비스' (부산지방기상청)	예보과 심안섭
17:50 ~ 18:00	10'	○ 상호 협력방안 토의	참석기관
18:00 ~ 18:10	10'	○ 마무리 말씀 ○ 폐회 및 기념촬영	예보과장
18:10 ~ 20:00	110'	○ 만찬	이시봉



□ 주요내용

○ [주제1] ‘국립수산과학원 해양관측 현황 및 서비스’ (국립수산과학원 한인성 연구사)

- 1921년부터 우리나라 근해 21개 정선, 207개 정점 관측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45년간 우리나라 인근 수온은 1.15℃ 상승하였음. 연안 29개소에 부이를 운영, 실시간 수온관측자료를 어업인에게 제공하고 있음.
- 위성을 활용하여 수온, 해파리 출현, 적조현상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해양모델을 운영하여 각종 예측정보를 서비스하고 있음

Q1. 수과원에서 운영하는 부이의 위치는? 관측자료를 공동활용하면 예·특보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임(부산지방기상청장)

⇒ 대부분의 부이가 연안에서 2k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평수구역이나 연안바다에 해당됨

Q2. 저수온이 관측되면 피해 예방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나?(부산지방기상청장)

⇒ 양식어민과 관련 과를 대상으로 문자, 속보로 주의보, 경보 전송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함

Q3. 적조 발생 현황을 보면 주로 남해안과 동해안에서 발생하는데 서해안에 잘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부산지방기상청장)

⇒ 진도 부근에 냉수대가 있어 이 냉수대의 블로킹과 서해안은 조석 간만의 차이가 커서 이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황토가 적조의 발생을 억제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Q4. 수과원에서 1년에 운영하는 표류부이 대수와 관측요소는? (관측과)

⇒ 1년에 5~10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온과 GPS만 탑재되어 있음

Q5. 수과원에서 운영 중인 관측선과 기상1호가 공동해양관측을 수행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됨(예보과, 기후서비스과)

⇒ 수과원은 총 10척(900ton~수십ton)의 선박을 보유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AWS가 탑재되어 있으므로 공동연구, 관측 추진은 좋은 협업 사례가 될 것임

Q6. 수과원의 기후변화연구과는 해양의 기후변화가 분석, 연구하는가?(예보과)

⇒ 상호 연관성이 있으므로 대기, 해양에 대한 분석, 연구를 하고 있으며, 기상청과도 협업하고 있음



기 상 청

○ [주제2] '해양예보 소개' (국립해양조사원 이주영 연구사)

- 자체 해양순환 예측모델 운영하여 항계안전 해양정보, 시공간적 조류 예측정보 제공, 인터넷 해양방송 운영 중임. 기상청과 협업하여 해수욕장이안류감시 시스템 운영 중임
- 관측자료, 수치조류도, 해양예보모델을 활용하여 해양예보지수(해수욕지수, 바다낚시 지수, 갯벌체험 지수, 바다갈라짐체험 지수) 개발 서비스 중임

Q1. 인터넷 방송은 정보 활용에 취약한 어업인들이 접하기 힘들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국립수산과학원)

⇒ 사업 시작 초기라 조회수나 활용도가 높지는 않음. 향후 케이블 방송을 활용하기 위해 노력중임

Q2. 기상청의 지역기후서비스사업의 일환으로 갯벌지수를 개발하여 서비스한 사례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람(관측과)

Q3. 모든 지수 개발은 타당성과 신뢰도가 있어야 하고, 일부 지수는 지역 경제와도 연관성이 높으므로 지수개발·서비스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음.(기후서비스과, 국립수산과학원)

Q4. 이안류감시서비스가 되고 있지 않은 지역에서도 사고가 발생할 사례가 있는데, 서비스 확대 방안은?(예보과)

⇒ 관측자료가 부족하여 당장 서비스 지역은 확대하기는 어려우나, 향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임

Q5. 조사원에서 운영중인 해양모델의 예측시간과 요소는?(부산지방기상청장)

⇒ 예측시간은 72시간까지이며, 수온, 염분, 조석, 해수면 높이에 대한 예측자료를 생산함

○ [주제3] '기상청의 해양기상서비스' (부산지방기상청 심안섭 사무관)

- 부족한 해양관측자료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장비 신규 도입중에 있음
- 해양 위험기상인 장주기파, 이상파랑에 대한 감시와 예측정보 제공 중에 있으며, 너울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을 위해 기압계별 발생 특징을 분석하여 예보에 활용하고 있음
- 기상청은 인터넷, 모바일, 131 ARS, 무선방송, 정기 간행물 등을 통해 다양한 해양정보를 제공중임

[붙임 1] 관련 사진

